

‘대조경험’으로서의 예수

- 실천영성의 원천

권영파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II. 『예수』와 『그리스도』의 좌표

1. 사상적 배경과 저술의 흐름에서 보는 『예수』와 『그리스도』
2. 신학방법론에서 살펴보는 『예수』와 『그리스도』

III. 계시체험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1. 경험과 해석의 순환
2. 계시경험의 구원적 의미
3. 계시경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IV. ‘대조경험’과 예수의 연결고리

1. 예수의 ‘대조경험’
2. ‘대조경험’으로서의 예수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9.04>

• ABSTRACT •

Christ as the Contrast Experience: Where Spirituality
for Social Transformation Begins

Senior Researcher Youngpa Kwon (Sogang Institute for Theology)

Schillebeeckx posits that all experiences are inherently interpreted, emphasizing that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s confession of Jesus as the Christ must be viewed within their cultural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Schillebeeckx's exploration of how specific experiences led to the early church's recognition of Jesus' identity and subsequent confession of Him as Christ. Rather than proposing a new Christology, this work seeks to deepen Christians' relationship with Christ through vivid confession and commitment. Schillebeeckx highlights a pivotal concept in his theology: the 'contrast experience,' which is the recognition of a gap between the ideal world and reality. He argues that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God's saving presence through Jesus' life and teachings, leading to their confession of Him as Christ. Schillebeeckx suggests that modern Christians, like the early church, should live out their faith by resisting injustice and embodying God's salvation in the world.

Key words: E. Schillebeeckx, Contrast Experience, Critical Correlation Method, Jesus-The Experiment of Christology, Anonymous Christian.

I.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정식으로 집약된다. 이 신앙은 역사적 구체적 인물, 나자렛의 예수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유일회적이고 비가역적이며 완전하게 계시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신앙 앞에 『예수 -그리스도론의 실험 *Jesus, The Experiment of Christology*』¹⁾ (이하 『예수』로 표기)이라는 저서 제목은 짐짓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예수』와 더불어 스킬레벡스(Edward Schillebeeckx, 1914-2009)의 그리스도론 3부작으로 꼽히는 『그리스도: 주님으로 경험된 예수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²⁾ (이하 『그리스도』로 표기)와 『교회: 하느님에 관한 인간의 이야기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을 대하며 당혹감은 증폭된다.

더욱이 이 책의 저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 이론을 주창하고³⁾ ‘화란교리서’⁴⁾로 불리는 문제적 교리서의 주요 필자였다는 사실과, 비록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세 번에 걸친 교회 심의를 받았⁵⁾는 점을 반영할 때 이 책과 저자에 대한 경계심을 피하기 어렵다.

1) 본 연구에서는 Edward Schillebeeckx,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Seabury, 1979)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2) Schillebeeckx, *Christ-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Seabury, 1980). 이 책은 CW VII로 출판되면서 *The Christian Experience in the Modern World*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3) 스킬레벡스는 칼 라너(1904-1984)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권영파·이규성, “스킬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 213(2021), 80-114.

4) Hoger Katechetische Instituut te Nijmegen, *De Nieuwe Katechismus: Geloofsverkondiging voor volwassenen* (Hilversum: Paul Brand, 1966). 1966년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화란교리서(De Nieuwe Katechismus)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첫 가톨릭 교리서로, 네덜란드 주교회의의 승인 아래 제작되었다. 현대적이며 에큐메니컬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그리스도의 신성, 원죄, 성체성사 등에 대한 해석이 전통적인 교리와 충돌하며 논쟁을 일으켰다. 또한, 출판 당시 교회의 승인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일부 주교들은 이 책의 배포를 제한하기도 했다.

스힐레벡스를 현대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출판함으로써 전 세계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신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주입하고,⁶⁾ 일관된 신학기반과 이론 위에 엄청난 양의 저술과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공헌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조금 더 다가가, 그가 신학자로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에라스무스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노력을 확인해준다.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Mundum Nulla Salus)”는 명제로 집약되는 그의 신학은 사회복음화를 실천하는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스킬레벡스 신학으로 진입하는 장벽은 결코 낮지 않다. 케네디(P. Kennedy)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상을 비판적으로 심도 있게 수용하며 형성된 그의 신학은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⁷⁾ 그러나 동시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스킬레벡스의 신학여정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첫째, 하느님은 신비이시며 인간의 어떤 개념도 이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인간은 하느님께서 순전히 주시는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입장이며, 넷째 역사 내 인간 행동은

5) 스킬레벡스를 향한 교황청의 조사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첫째는 1968년에는 스킬레벡스의 다양한 출판활동과 네덜란드 교회의 움직임과 관련한 일반적인 조사였고, 1979년의 조사는 *Christ- 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에 나타난 성서신학적 방법과 그리스도론의 역사성을 둘러싼 조사였다. 마지막 조사는 1984년에 *On Church Ministry*에 대한 조사였다. 이 세 번의 조사에서 스킬레벡스는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고 케이스들은 모두 종결되었다.

6) Schillebeeckx, *De sacramentele heilseconomie: theologische bezinning op St. Thomas' sacramentenleer in het licht van de traditie en van de hedendaagse sacramentsproblematiek* (Antwerpen: Nelissen, 1952).

7) 이에 관하여, Philip Kennedy, *Schillebeeckx* (Liturgical Press, 1993), 36-53.

미래의 전망을 바라본다.⁸⁾

이러한 이해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논리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론이 실험과 연결되는가?, “모든 경험은 해석된 체험이다”라는 명제를 따랐던 그의 신학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경험적 고백도 역사적인 산물로 환원되는가? 특히 스킬레벡스 후기 신학을 관통하는 ‘대조경험’(contrast experience)은 예수를 통한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을 만난다. 이에 본 연구는 스킬레벡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예수』를 중심으로 그가 예수를 “대조경험”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흐름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험과 해석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계시경험과 ‘대조경험’의 관계 및 ‘대조경험’에 담긴 구원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수가 작성된 배경과 취지 및 방법론에서 출발하여, 그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과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킬레벡스의 그리스도론을 탐구하여 적절성과 논리적 결함을 분석하거나 그가 사용한 성서주석학의 타당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시선은 ‘대조경험’이라는 결실에 이르는 논리적 흐름과 그 방법론이 현대 한국신학에 주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모으고자 한다.

II. 『예수』와 『그리스도』의 좌표

1. 사상적 배경과 저술의 흐름에서 보는 『예수』와 『그리스도』

스킬레벡스 신학의 뿌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창조-구원-종말 신학이다. 그러나, 그의 아퀴나스 이해는 20세기 중후반에 가톨릭 교회를 휩쓸

8)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An Orientation to His Thought,” ed.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The Schillebeeckx Reader* (Unkno, 2001), 11-19.

었던 네오스콜라티시즘(Neo-scholasticism)과는 다른 노선을 경주했다. 스킬레벡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of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신신학운동의 주축인 슈뇌(M.D. Chenu, 1895-1990) 와 함께 시대에 응답하는 신학의 원천을 아퀴나스 신학으로부터 끌어올렸다.⁹⁾ 스킬레벡스의 신학저술은 아퀴나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구원으로 이끌려는 기획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한편, 스킬레벡스의 신학을 대표하는 3부작 중 『예수』는 1974년에 네덜란드어로 처음 발표될 당시 『예수, 살아계신 한 분에 관한 이야기 *Jezus, het verhaal van een levend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1979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론 실험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와 짝을 이루는 『그리스도』는 1977년에 네덜란드에서 『정의와 평화: 은총과 해방 *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1980년에 영어로 출판되면서 『그리스도: 주님으로 경험된 예수 *Christ-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로 변경되었고 최근에 발행된 총서에서는 『현대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경험 *The Christian Experience in the Modern World*』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네덜란드어 원본을 기준으로 각각 641페이지와 904페이지에 달하는 두 저서는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 of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킬레벡스는 공의회가 폐막된 이후(1965년)에 다시 네이메헌(Nijmegen) 대학의 교단으로 돌아가 성서신학과 해석학에 집중하며 해석학 강의도 진행했다. 이 시기의 스킬레벡스는 신학과 사목현장에서 공의회 정신을 굳건하고 온전하게 실현하려 했다. 특별히 1967년부터 대략

9) 세뇌의 신학에 관하여, 권영파, “세뇌(MD Chenu)의 신학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 『신학전망』 220(2023), 2-30; 권영파, “아퀴나스 신학의 새로운 파장이 불러온 공명,” 『이제 룡 신부 고회기념논문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4), 55-83.

1여년간 미국에 머물며 당대의 철학과 신학을 이끌던 학자들과 가졌던 활발한 토론과 미국 교회와 사회의 현실로부터 받은 큰 충격이 『예수』와 『그리스도』을 저술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스킬레벡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확산된 세속화 움직임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에 섰다.¹⁰⁾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지점에서 교회의 노력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교회를 통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¹¹⁾ 한편, 스킬레벡스는 당시 괄목할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새로운 구원의 희망으로 부상했음을 주목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인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보다 나은 미래건설을 지향하는 노력에서 희망을 찾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희망과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킬레벡스가 과학기술과 이에 동반하는 경제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문제를 경고했다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술된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손길에 협조하는 교회와 그를 통해 구원에 다다른 세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여정에서 스킬레벡스의 신학적 기획의 핵심에 이 두 가지 주장, 곧 인간이 구원의 약속이며, 예수의 인성이 하느님의 구원을 구성한다는 주장이 놓여있다.¹²⁾

10) 세속화에 관한 성찰이 여러 저서에서 나타나지만 Schillebeeckx, "The New Image of God," *God the Future of Man* (Sheed and Ward, 1968), 103-107에서 그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1) Schillebeeckx, "Secularization and Christian Belief in God," *God the Future of Man*, 33.

12) Kathleen Anne McManus, *Unbroken Communion: The Place and Meaning of Suffering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Rowman & Littlefield, 2003), 77.

2. 신학방법론에서 살펴보는 『예수』와 『그리스도』

스힐레벡스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1983년의 고별강연에서 그가 언급한 신학방법론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때와 지금의 비판적인 상관성(critical correlation between then and now)’으로 명명한 방법론에서 ‘상관성’은 현재의 경험과 교회 경험이 축적한 전통간의 연결을 의미한다.¹³⁾ 여기서 스킬레벡스는 이 방법론에 입각하여 신학을 하기 위한 세 작업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현재의 세계 또는 현재 경험의 세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신약성경과 이후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경험의 근본을 구성하는 항상적 구조(constant structures)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비판적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찾아내고 이 두 원천을 비판적으로 대응시키는 일이다.¹⁴⁾

이 방법론에 비추어 볼 때 1950년대부터 스킬레벡스가 관심을 기울이며 세속화와 무신론, 무신론적 배경에서 전개되는 사회개혁 운동 등을 신학적으로 성찰했던 노력을 첫째 단계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작업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항상적 구조는 삶의 질문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답이 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학방법론에 비추어 볼 때, 『예수』에서 스킬레벡스가 공관복음을 바탕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역사비판적 분석을 시도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스킬레벡스는 십자가 처형과 죽음, 부활보다는 예언자이며 스승으

13) Schillebeeckx,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in 1983,” *Essays Ongoing Theological Quests* (Bloomsbury Publishing, 2018), 57.

14) 위의 글, 57-64. 그런데 스킬레벡스 신학 여정에서 이러한 방법론은 교황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술한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on the Books ‘Jesus’ and ‘Chris’*, (London: SCM, 1980)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로서의 예수가 살아낸 역할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스킬레벡스는 예수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행했는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된다. 한편, 스킬레벡스 자신이 일생에 걸쳐 자신의 그리스도론적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반영할 때,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의 구성과 내용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 계시체험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1. 경험과 해석의 순환

보에브(L.Boeve)는 스킬레벡스 신학을 ‘경험의 신학’으로 지칭하며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신학과 신앙의 동력은 경험이라고 주장한다.¹⁵⁾ 그런데, 스킬레벡스는 분명한 태도로 “모든 경험은 해석된 체험이다”¹⁶⁾라고 천명한다.¹⁷⁾ 계시체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러한 그의 주장은 종교

15) Lieven Boeve, “Experience According to Edward Schillebeeckx: The Driving Force of Faith and Theology,” ed. Lieven Boeve and Laurence P. Hemming, *Divinising Exper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us Experience from Origen to Ricoeur*, (Leuven: Peeters, 2004), 199-225.

16)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고전 네덜란드어에서 varen은 여행을 의미했다. 이후 이 단어가 ‘수로로 통해서 여행하는’ 또는 ‘바다를 여행하는’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었다. 스킬레벡스는 이로부터 경험을 의미하는 현대어 ervaren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Jesus*, 31과 fn. 17). 한편, Kennedy에 따르면, 이러한 스킬레벡스의 경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네덜란드어나 독일어에서 전-반성적 경험beleving과 해석된 경험ervaring을 의미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beleving은 비인식적 단계와 인식적 단계의 상호관계가 막 시작되는 첫 단계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ervaring은 인식적 단계에서 경험된 바의 내용이 경험을 통한 세계와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방점이 놓인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체험은 유기체가 직접 경험한 심적 과정으로 경험과는 달리 지성, 언어, 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이지 않은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거나,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기 전의 개인의 주관 속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과정이나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스킬레벡스가 제시한 문장을 “모든 경험은 해석된 체험이다”로 번역하고자 한다.

적 경험을 주관의 개념적인 관여가 배제된 순수하게 주어진 지각경험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분명한 거리를 둔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정신이 백색 칠판이 아니라는 성찰에서 출발한다. 그 어떠한 경험도, 계시경험까지도, 정신적인 공백과 사회적인 공백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경험은 그 체험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이뤄지며 그 정신은 사회 안에서 형성된 정신문화의 연결망 안에 자리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시체험도 반성적인 이성을 통해 비로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는 주장한다.¹⁸⁾

여기서 나타나는 스킬레벡스는 체험과 해석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경험을 설명한다. 이때 해석의 틀은 이전까지의 경험인 전승이다. 그런데,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는다. 교회는 전승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언어와 공동체의 경험 및 정서, 개인의 감정과 앎 등을 모두 활용하며 지각을 통해 체험된 사태를 해석함으로써 체험을 경험으로 만들어간다. “새롭게 해석된 바로서의 경험은 이전까지의 해석 틀을 비판적으로 수정하며 의미를 부여한다.”¹⁹⁾

이러한 발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이전까지 해석의 틀로 작용했던 전승이 새로운 체험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앙적 체험을 해석하는 틀인 전승도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의 틀이 새로운 체험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 즉 구체적인 역사 변화에 따라 인간의 자기이해가 변화된 상황에서 신앙전승이 이 새로운 자기이해에 부응하지 못하여 해석틀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전승의 변화가 요청된다.

17) Schillebeeckx, *Jesus*, 본문 17와 fn. 17.

18) Schillebeeckx, “Experience and Faith,” *Essays Ongoing Theological Quests*, 11-12.

19) 위의 글, 13.

스힐레벡스는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해석이 바뀌었음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했다.²⁰⁾

$$\frac{\text{예수의 메세지}}{\text{예수 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 = \frac{\text{신약성경의 메세지}}{\text{신약성경 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

이는 다음 요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재생산된다.

$$\frac{\text{교부들의 종교적 해석}}{\text{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 \frac{\text{중세의 종교적 해석}}{\text{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마지막으로 재생산된 관계는 관계 안에서 ‘여전히 다시 재생산’ reproduced yet again되거나 다음 요소 사이에서 정교화된다.

$$\frac{\text{오늘날의 종교적 해석}}{\text{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

스힐레벡스의 설명에 따르면, 분자와 분모의 관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역할은 ‘성령’이 주도한다. 각 시대의 신학자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체험을 식별하여 변화된 상황의 체험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성찰하고 제시했다. 신학자로서 스킬레벡스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 경주한 노력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체험을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 Schillebeeckx,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62-63.

이제 우리는 스킬레벡스가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 신앙의 경험이다”²¹⁾을 통해 주장하려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스킬레벡스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문화적 배경에서 다르게 표현된 신앙의 경험을 관통하는 바를 초기 교회공동체의 예수 경험, 곧 성령의 경험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 경험과 상관하여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의 정수에 다다른 체험을 이끌고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시하려는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저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계시경험의 구원적 의미

그런데, 이처럼 경험을 해석과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계시 경험은 계시로서 ‘해석’된 한에서 계시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스킬레벡스가 말하는 계시체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킬레벡스가 계시 경험도 해석의 지평에 정위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스킬레벡스가 계시를 ‘경험되고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 하느님의 구원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²²⁾ 그러나 그의 신학에서 계시체험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스킬레벡스에게서 계시체험의 특수성은 체험이 가져오는 변화에서 확보된다. 이때 계세체험을 통해 체험자의 변화에 있어서 그 시작점은 체험자에 놓이지 않는다. “계시는, 즉 순전히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은, 인간의 경험을 능가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시는 인간의 주체적인 경험이나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21) Schillebeeckx, *Interim Report*, 50

22) Schillebeeckx, *Jesus*, 39.

계시는 인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경험 안에서 감지될 뿐이다.”²³⁾

이런 이해에 발을 딛을 때, 스킬레벡스가 “계시는 하늘로부터 직접 오지 않는다.”²⁴⁾”고 주장하는 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계시를 ‘인간의 해석이 부여한 그 무엇’으로 간주하려 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계시는 인간의 구체적인 체험과 반성적 노력 및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 계시 경험으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계시이다. “계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천이다²⁵⁾” 이처럼 스킬레벡스에게서도 계시체험은 주어진 바에 대한 인간의 반응 내지 응답의 구조를 갖는다.

한편, 계시 이해에 있어서 스킬레벡스의 초점은 계시 체험이 경험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경험되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놓인다. 그에 따르면, 계시는 놀라움과 새로움 그리고 변화라는 인간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계시체험은 이전까지 익숙했던 실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같은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워주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식별하도록 이끈다.²⁶⁾ 또한 “계시로서의 인간 경험은 인지적(cognitive)이고, 비판적(critical)이며 생산적(productive) 또는 해방시키는(liberation) 능력(power)을 갖는다.”²⁷⁾

스킬레벡스가 계시체험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는 부분은 회심(conversion)에 있다. 그러나 거쳐 주어진 체험이 “그 주체에게 그러한 반응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²⁸⁾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신앙인이 계시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인간의 심연에서 자신

23) Schillebeeckx, *Interim Report*, 10.

24) Schillebeeckx, “Theological Quests,” 115.

25) Schillebeeckx, *Christ*, 33-34

26) Schillebeeckx, “Experience and Faith,” 9.

27) 위의 글, 13.

28) Schillebeeckx, “Experience and Faith,” 2.

을 드러내는 그 존재에게 경험자 자신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경험의 규범(norm)에 승복하는 경험이다.²⁹⁾ 경험자는 전인격적으로 경험자체를 확정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한다. 계시는 회심 경험을 내포한다.³⁰⁾

이처럼 회심자가 계시를 체험하며 겪는 변화, 곧 인지적이고, 비판적이며 생산적productive 또는 해방시키는 능력을 갖는 변화는 계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에 현재화한다. 이러한 “계시 경험이 지닌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진리와 선성(goodness), 정의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활동에서 발휘된다.”³¹⁾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계시를 이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신앙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를 현재화시키는 공동체를 통해 실현된다.³²⁾

3. 계시경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이와 같이, 스킬레벡스에게 계시경험은 하느님께서 건내 주신 사태에 인간이 응답하는 가운데 체험자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난 변화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해방시키는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 세상을 변혁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뜨거운 체험에 머물며 개인적인 구원을 만끽하는 자세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처럼 스킬레벡스가 계시경험을 내면의 변화로부터 사회정치적,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인간학 상수(anthropological constants)’로 집약되는 그의 인간 이해가 전제된다.³³⁾

29) 위의 글.

30) 위의 글.

31) Schillebeeckx, “Experience and Faith,” 13.

32) Schillebeeckx, *The Understanding of Faith -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Seabury Press, 1974), 12.

33) ‘인간학 상수’는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육체성, 관계성, 사회성, 상황성, 윤리성, 종교성과 이 6가지 상수들 간의 역동성이다. 스킬레벡스가 제시하는 7가지의 ‘인간학

그런데, 스킬레벡스 신학에서, 인간학 상수를 반영할 때 인간이 계시체험을 통해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지점에 ‘대조경험’이 자리 잡는다. 다시 말해, ‘대조경험’은 스킬레벡스 신학 안에서, 종교적인 존재로서 사회정치적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이 초월론적(transcendental) 지평의 삶에서 향주적인(theological)³⁴⁾ 지평의 삶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가리키고 있다.³⁵⁾ 이런 의미에서 ‘대조경험’은 계시경험의 속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대조경험’ 또는 ‘부정적 ‘대조경험’(negative contrast experience)은 마땅히 그래야 할 세계의 모습과 현재 직면한 세계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경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에는 이전까지의 설명체계로는 해석 불가능한 사태가 어떤 계기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사태가 그려진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대조경험’에서 그 건너편에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재 지평이 ‘긍정’으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스킬레벡스 신학에서는 고통이나 불의를 직면하는 상황이 이 ‘대조경험’에 상응한다. 고통이나 악이 ‘대조경험’이 되는 것은 악과 고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이보다 나은 무언가를 찾는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상수는 인간본성에 대한 정의나 역사과정을 분석하여 얻어낸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이 상수들은 인간의 행동과 실존 이해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구성적 조건과 인간의 충동과 방향,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Schillebeeckx, *Christ*, 725-737.

34) theological의 의미와 번역에 대하여, 권영파·이규성, “스킬레벡스의 ‘의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101-107.

35) 스킬레벡스는 1966년에 발표한 글,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T. Patrick Burke (ed.), *The Word in History*. The St. Xavier Symposium (New York, 1966), 41-59를 통해, 세계 안에서 자기이해를 통해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부정’을 통해 ‘긍정’ 앞에 개방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며,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활동은 ‘희망’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지평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진다.³⁶⁾ 스킬레벡스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견과 인식의 근원이 하느님으로 설정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대조경험’의 특징은 케네디의 주장처럼, 하느님에게 다다른 세 가지 길이라는 유비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결실로 볼 수 있다. 즉, 긍정의 길(via affirmativa)과, 부정의 길(via negativa), 초월의 길(via eminentia)이라는 구도를 ‘대조경험’과 연결시킬 때 이전까지의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험으로 ‘대조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³⁷⁾ 이렇게 볼 때 ‘대조경험’은 단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평의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 실천을 이끄는 힘의 원천에 맞는 과정을 포함하는 점에서 계시경험이 지시하는 구원의 맥락에 닿게 된다.

IV. ‘대조경험’과 예수의 연결고리

1. 예수의 ‘대조경험’

스킬레벡스는 예수님에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로서의 아빠(Abba) 체험과 십자가 상 죽음이 ‘대조경험’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아빠체험과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는가?에 집중된다. 스킬레벡스의 초점은 인간으로서 예수가 어떤

36) 간의 미래와 희망을 하느님으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스킬레벡스에게서 ‘인간의 미래, 하느님’이라는 종말론의 윤곽이 확보된다. 스킬레벡스의 종말론과 희망의 관계에 대하여, 권영파, “역사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으로서의 종말-스킬레벡스의 역사이해와 종말론에 관한 소고” 『신학과 사상』 89(2023), 136-173.

37) 케네디는 긍정과 부정, 초월을 각각 이론과 실천, 신비에 상응시킨다. 이에 관하여, Philip Kennedy, *Deus Humanissimus: The Knowability of God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Editions Universitaires Fribourg, 1993), 326-328.

변화를 경험했으며 예수를 경험한 이들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스킬레벡스는 아빠체험을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받을 받고 설명한다.³⁸⁾

우선 스킬레벡스의 저서에서 예수는 아훼를 따르는 유대인의 종교전통 안에 속해있다는 점이 전제된다. 이러한 예수는 고통받고 가난하며 소외당한 이들과 운명을 나누며 그들의 고통에 자신을 열었다. 예수는 재앙과 고통에 휩싸인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이 고통의 원인인 모든 악을 이기시는 하느님을 아빠로서 경험하게 된다고 스킬레벡스는 설명한다.³⁹⁾ 사랑하고 치유하며 기적을 베풀며 예수는 악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비롭고 배려하는 하느님을 친밀한 교제 안에서 경험했다. 이 교제를 통해 예수는 아훼를 따르는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서 형성된 하느님 이해를 벗어나 희망적인 전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해석체계를 뒤엎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아빠체험은 예수 자신에게도 ‘대조경험’이었다고 스킬레벡스는 설명한다.⁴⁰⁾

한편, 스킬레벡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하느님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향한 예수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순종이 십자가에서 정점에 달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예수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에서 대조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

38) 예수의 인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신적인 구원으로 기우는 영성적 흐름을 경계하려는 당대 신학자들과 스킬레벡스의 노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별히 스킬레벡스는 메를르 폰티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육체를 통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자기인식과 하느님 인식에 다다른 인간의 처지를 강조한다.

39) Fakre는 스킬레벡스에게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정성이 가진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Gabriel J. Fackre, “Bones Strong and Weak in the Skeletal Structure of Schillebeeckx’s Christ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1/2(1984), 248-77.

40) Schillebeeckx, *Jesus*, 268.

을까?

스힐레벡스는 우선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인간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짚는다.⁴¹⁾ 그러나 스힐레벡스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자신은 반대자들에게 의해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로 인한 제자들의 충격에 대비하려 했다. 여기서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의도적인 작별 식사로 묘사되며, 예수는 점차 다가오는 죽음을 그의 삶과 사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설명된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하느님과의 친교와 순종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스힐레벡스는 “예수의 전체 삶은 그의 죽음의 해석이다. 구원의 본질은 그 안에 충분히 존재한다.”⁴²⁾로 정리한다. 예수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가 보여준 기적과 삶을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기존의 하느님 이해에 입각한 신의 활동으로 보는 모든 시선을 부정하고 새로운 하느님을 드러냈다. 이처럼 예수의 모든 사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이해를 새로운 이해로 전환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한편,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느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계셨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임으로써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셨다. 스힐레벡스는 십자가 상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당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⁴³⁾와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

41) Schillebeeckx, *Jesus*, 120-121.

42) Schillebeeckx, *Jesus*, 311.

43) 스힐레벡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전체를 읽을 때 이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로 드러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해석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어두움,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예수의 기도를 연결시킨다. 위의 책, 737. 이러한 주장에 대해 Galvin은 스힐레벡스의 십자가 이해가 십자가사건의 온전한 실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John P. Galvin, “The

님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를 ‘대조경험’의 극점으로 제시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연결되어 악을 이기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구원약속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그는 부활사건을 하느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아니오’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예’가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설명한다.⁴⁴⁾ 이 내용을 스킬레벡스는 “예수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⁴⁵⁾는 문장으로 함축한다.

그런데, 예수의 ‘대조경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스킬레벡스가 정통 그리스도론을 부정하고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 스킬레벡스의 언급은 확고한 그리스도론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경험대상을 고려하여 화법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인 예수가 자신과 하느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창구를, 하느님으로부터 오며 하느님에 의해 주어진, 특별한 관계인 아빠체험으로 설명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2. ‘대조경험’으로서의 예수

이제 예수가 ‘대조경험’과 연결되는 두 번째 고리, 곧 살아있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대조경험’으로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여기서 부각되는 장면은 고통받는 이들과 예수의 연대 및 기적을 베푸신 행위이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구원은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구원을 “기쁜 소식”과 연결시킨다. 이는 성서에 나타나는 구원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적이며 지속

death of Jesus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Irish Theological Quarterly* 50(1983), 168-180.

44) Schillebeeckx, *Jesus*, 641.

45) Schillebeeckx, *Christ*, 729.

한 변화로서 나타남을 시사한다.

그에 따르면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악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예수의 기적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과의 싸움에서 예수는 완전히 하느님 편에서 있다.⁴⁶⁾ 예수님은 악의 능력을 알았고 악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했다.⁴⁷⁾ 예수님의 기적은 고통 중에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이다. 예수의 기적은 이미 실현된 종말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사건이다.⁴⁸⁾

그런데, 스킬레벡스는 이러한 구원의 깊은 현실이 그 원천에 대한 의문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부연한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초기에는 예수의 기적의 원천인 신비가 악령들의 목소리를 일으키며 그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며 외치는 것으로 시작된다.⁴⁹⁾ 이처럼 예언자인 스킬레벡스는 예수 안에서 신비주의와 인간의 치유가 하나로 그리고 같은 원천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대조경험’으로서의 예수를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스킬레벡스가 성서에 나타나는 기적을 ‘대조경험’으로 받아들여진 예수와 연결지을 때에도 기적 자체 보다 기적이 이를 경험한 이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놀라움으로 서술함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예수가 무엇을 행했다는 사실 묘사보다 그 사실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보는 지점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그에 따르면, 기적을 의미하는 세속적인 그리스어 단어인 *thauma*가 복음서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의 일부 말과 행동이 백성들 사이에서 *thaumadzein*을 일으켰다고만 말한다. 즉, 그들로 하여금 놀라고 놀라워하게 만들었다.”⁵⁰⁾

46) Schillebeeckx, *Jesus*, 189.

47) Schillebeeckx, *Jesus*, 724

48) Schillebeeckx, *Jesus*, 185.

49) Schillebeeckx, *Jesus*, 193.

이 지점에서 스킬레벡스는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통해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하시려는 하느님의 보증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스킬레벡스는 예수의 가르침을 스캔들로 간주하는 종교지도자들과 달리 이들에게 예수가 보여준 기적은 이제 하느님이 펼치는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점, 곧 실현된 종말의 사건으로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⁵⁰⁾ 그 설명에 따르면, 예수의 인간적 존재는 그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전까지 온갖 어려움으로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함으로 경험되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회복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까지의 하느님과 다른 하느님 이해의 지평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스킬레벡스가 서술하는 성서 내의 대조경험에서, 곧 예수를 만난 이들의 체험에서, ‘대조경험’의 진정한 면모가 놀라움에서, 또는 자기 존재 의미를 자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킬레벡스에 따르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 ‘행동정식으로서의 정행 (orthopraxis)’를 의미한다. 즉, 예수의 생애 전체는 그가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orthodox)’와 온전히 부합하는 행동정식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행동정식으로서 변화된 자신을 자신의 세상과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었다.⁵²⁾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우리는 예수를 대조경험으로 만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개인과 사회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원의 경험은 해석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구원은 주어지는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때 구원의 요지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이

50) Schillebeeckx, *Jesus*, 182.

51) Schillebeeckx, *Jesus*, 185.

52) Schillebeeckx,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Concilium* vol. 93, ed. Edward Schillebeeckx and Bas van Iersel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4), 110.

다. 그 하느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자신과 세상 및 하느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뒤엎으며 진리이신 하느님에게 한 걸음 다가서도록 이끈다. 스텔레벡스 신학에서 예수가 대조경험으로 제시되고, 그 예수가 구원과 연결되며, 그 구원이 사회적 변혁의 영성과 연결되는 고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구원경험은 일회적인 영혼의 구원과 동일시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그분의 손길에 순종하는 가운데 신비이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서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스텔레벡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V. 나가는 글

이상의 내용에서, 사회실천 영성을 신학성찰에 깊이 침투시킨 스텔레벡스의 대표적인 문제작, 예수를 중심으로 ‘대조경험’과 예수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기저에 놓인 신학방법론과 체험과 해석의 순환고리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본 논문은 이 저서가 저술되고 출판된 상황과 스텔레벡스의 전반적인 신학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작업과정과 결실이 현대신학에 주는 의미를 밝히려 한다.

이러나스 신학에 근본적인 뿌리를 박은 스텔레벡스 신학 작품은 21세기에 혁신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21세기에 공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의 신학은 분명히 새로운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대의 철학과 신학 조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스텔레벡스는 성서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체험에서, 곧 성령 체험에서, 신학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지 않는다. 이는 스텔레벡스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체험의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스텔레벡스가 주장하는 ‘해석된 체험’으로서의 신앙은 교리를 역사적 산물로 환원하지 않는다. 스텔레벡스의 신학에서 ‘믿음의 행위는 문

화적으로 결정된 표현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실재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체험과 표현 간의 간극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하느님이 매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조경험’은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지점에 머물지 않는다. 스킬레벡스는 하느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우수성과 유한성을 보다 확실하게 깨달으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느님을 보는 자리에 현대인을 초대하려 한다. 여기서 ‘대조경험’은 지금까지의 자기이해와 세계관을 넘어 보다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는 스킬레벡스에게서 새로운 지평으로의 나아감에서 근본적인 추동력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 손길에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할 뿐, 진정한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는 힘은 역사를 구원하는 하느님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이 라너와 더불어 스킬레벡스가 주장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요지이다.

혹자는 스킬레벡스의 신학이 서구중심적이고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배타적 구원관을 표방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하느님을 명시적으로 깨닫고 만나며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다. 스킬레벡스가 발딘은 상황과 그가 마주한 문제 및 교회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스킬레벡스가 도미니코 수도회에 속한 아퀴나스 신학의 계승자이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천명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노선을 유지하는 신학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감지되는 바와 같이 스킬레벡스의 신학방법론과 예수-그리스도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의 그리스도론에 담긴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엄밀하게 볼 때 그의

그리스도론은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조화를 이루고, 구원경륜의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도 충돌없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레벡스의 그리스도 이해는 큰 울림을 준다. 이는 ‘대조경험’이라는 조명장치로써 동시대인이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이끄는으로써 신비이신 하느님에게 응답하도록 촉구하는데서 절정에 이른다. 스텔레벡스의 신학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손을 잡고 지금 여기서 구원에 한걸음 다가서라고 우리를 부른다.

스텔레벡스가 ‘대조경험’을 제시하고 ‘해석된 체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 시대가 하느님을 찾는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서 동시대인의 사고방식과 경험 특성에 공명하는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라고 스텔레벡스는 답할 것이다. 스텔레벡스는 과학과 경제발전이 고통을 해결해주시리라고 기대하는 희망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려 했다. 이는 그들의 희망이 궁극적인 해방과 평화를 줄 수 없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구조와 역동성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대의 ‘대조경험’은 생태위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구 내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특별히 인간의 존재가 위기에 처한 현실은 이전까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문을 던지며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기를 요청한다. 이에, 생태중심적 관점부터 과학기술 중심주의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생태론이 등장했다. 그리스도교 교회도 종파를 초월하여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한다. 여기서 피조물과 인간의 형제적 연대와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그리스도인의 생태운동을 특징짓는다. 스텔레벡스의 신학방법론과 방향성은 현

대 교회가 생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각점을 지키고, 교회 밖의 생태운동과 연대하며, 오늘 이 순간에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증언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개괄적인 구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신학화하는 작업을 과제로 부여받고 정진하는 한국신학의 미래를 그려본다.

참고문헌

- 권영파.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윤리적 순교’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125-165.
- _____. “세뉴(MD Chenu)의 신학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 『신학전망』 220(2023), 2-30.
- _____. “역사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으로서의 종말-스힐레벡스의 역사이해와 종말론에 관한 소고.” 『신학과사상』 89(2023), 136-173
- _____. “아퀴나스 신학의 새로운 파장이 불러온 공명.” 『이재룡신부 고회기념논문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2024), 55-83.
- 권영파 · 이규성.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 213(2021), 80-114.
- _____.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2021), 159-188.
- Boeve Lieven. “Experience According to Edward Schillebeeckx: The Driving Force of Faith and Theology”. ed. Lieven Boeve and Laurence P. Hemming, *Divinising Exper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us Experience from Origen to Ricoeur*, (Leuven: Peeters, 2004), 199-225.
- Fackre, Gabriel J. “Bones Strong and Weak in the Skeletal Structure of Schillebeeckx’s Christ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1/2 (1984), 248-77 (257).
- Galvin, John P. “The death of Jesus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Irish Theological Quarterly* 50. (1983): 168-180.
- Kennedy, Philip. *Schillebeeckx*. Liturgical Press, 1993.
- _____. *Deus Humanissimus: The Knowability of God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Editions Universitaires Fribourg, 1993.
- McManus, Kathleen Anne. *Unbroken Communion: The Place and Meaning of Suffering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Rowman & Littlefield, 2003.
- Schillebeeckx, Edward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Jesus Christ

- and Human Freedom,”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Concilium* vol. 93, ed. Edward Schillebeeckx and Bas van Iersel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4),
- _____.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Seabury, 1979.
- _____.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Seabury, 1980.
- _____. *Interim Report on the Books “Jesus” and “Christ”*, London: SCM, 1978.
- _____. *The Understanding of Faith -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CW V.
- _____. “Experience and Faith.” *Essays Ongoing Theological Quests*, CW XI, 13.
- _____.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T. Patrick Burke (ed.), *The Word in History*. The St. Xavier Symposium, New York 1966, 41-59.
- Schreier, R. “Edward Schillebeeckx: An Orientation to His Thought.” ed. R. Schreier, *Edward Schillebeeckx: The Schillebeeckx Reader*. Unkno, 2001.
- Simon, Derek J. “Salvation and Liberation in the Practical-Critical Soteriology of Schillebeeckx.” *Theological Studies* 63.3 (2002).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01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12일

• 국 문 초 록 •

스힐레벡스는 모든 경험이 본질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는 스킬레벡스가 특정 경험들이 어떻게 초기 교회가 예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는지를 탐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그가 초기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고백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스킬레벡스는 그의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대조 경험'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초기 교회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적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 기독교인들도 초기 교회처럼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구현함으로써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스킬레벡스, 대조경험, 비판적상관성, 예수-그리스도론 실험, 익명의 그리스도
